

고 김영춘 동지의 장의식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무력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 동지의 장의식이 2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4.25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고 김영춘 동지의 명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명구가 발인되였다.

고인의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리찌골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 애국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비파거리, 하신거리, 권문동을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수도시민들이 명구차를 배례하였다.

김영춘 동지는 혁명의 총대들 역세게 들어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부무의 길을 걸으면서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데서 특출한 공적을 세웠으며 높은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을 지니고 당의 군사로선관철에 뚜렷한 생의 자취를 남기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수도시민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강한 원칙성과 일욕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 대장 김수길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종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흠을 엮으시였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흠을 덮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모에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결을 떠난 김영춘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 당, 무력기관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영춘 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련단심 백옥 같은 총정과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는데 크게 공헌한 혁명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본사정지보도반

심, 소략하고 청명결백한 품성을 지니고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공헌한 고인과 영결하는 슬픔에 잠겨 명구차를 전송하였다.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영결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의 명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친 로혁명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명구를 향하여 《명구에 붙어 총!》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고 김영춘 동지의 명구를 앞세우시고 려사릉에 오르시였다.

